일섭 스님 열반 50주기, 후학 佛母들 뭉쳤다

불교미술일섭문도회, '불모들의 향연' 문도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
118명 작가, 120여 점 선봬
일섭 스님 '제존집회도' 전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금용 일섭 스님(1900~1975)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금호 약효 스님, 보응 문성 스님의 전통을 계승한 한국 근대 불교미술 중흥의 주역이다. 일섭 스님의 화맥(畵脈)을 이은 후배 불모(佛母)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사)불교미술일섭문도회(이사장 전연호)는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제5회 불교미술일섭문도전 '불모들의 향연'을 개최한다.

일섭 스님 열반 50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의 화맥을 계승한 후배 작가 118명이 참여해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회에서는 일섭 스님이 조성한 '제존집회도(諸尊集會圖)'가 전시돼 눈길을 끈다. 현재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제존집회도'는 일섭 스님이 1951년에 제작한 불화다. 이 불화의 특징은 범종교적 존상 구성에 있다. 도상에는 부처님과 보살, 팔부중 등 불교의 존상과 함께 관우, 성모마리아, 예수, 마호메트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서양화, 판화기법까지 도상에 도입해 예술적 가치가 높은 불화로 평가받는다.

수안 스님, 허길량, 전연호 등 한국 불교미술을 이끄는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전시의 관람 포인트다. 수안 스님은 '새벽별과 빈 발우(100.0×65.0cm, 지본, 채색)'을 통해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 발심 출가해 새벽별을 보고 깨닫고 빈 발우로 마을을 돌며 전법했던 부처님의 정신을 전한다.


근대불교미술 중흥을 이끈 불모 일섭 스님이 1951년 조성한 '제존집회도'. 부처님과 팔부중을 비롯해 관우, 성모마리아, 예수, 마호메트 등 각 종교의 성인들이 도상에 담겼다.

국가무형유산 불화장 이수자이자 대구시무형유산 단청장인 전연호 작가는 '천수관음도(159.0×113.0cm, 면본, 채색, 금니, 금박)'을 선보인다. 11면 관음보살과 관세음보살 42수주(四十二手呪)까지 표현한 이 작품은 검은 바탕에 금니와 금박에 채색을 더해 화려함을 강조했다.

국가무형유산 목조각장 송헌 전기만 작가도 작품을 출품한다. 청년기 때부터 목조 불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전 작가는 50대에 이른 1970년대 스승 석정 스님을 만나 조선 후기 불교조각을 체계적으로 연구·구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통 도상에 기반한 '목조지장보살좌상(79.0×64.0×94.0cm, 은행나무에 개금)'을 출품한다.

전연호 불교미술일섭문도회 이사장은 "불교미술을 계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작품은 후학들에게 남길 또 하나의 발자취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모든 불교미술인들에게 자긍심을 북돋우고 불교미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불교미술일섭문도회는 조선 후기 대표 화승인 금호 약효 스님의 화맥을 이은 일섭 스님의 제자들로 이뤄진 우리나라 최대 불교미술단체로, 현역작가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 중 23명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으로 인정됐으며, 많은 회원들이 국가유산 수리기능자·기술자로 활동 중이다.

불교중앙博 '정토신앙' 2025인문학강좌 연다

5월 22일~6월 19일 매주 목요일

아미타불과 같은 부처나 미륵보살과 같은 보살들이 거주하고 있는 청정한 세계인 정토(淨土)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토신앙'의 면면을 조명하는 인문학강좌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불교 및 인문학 전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지식 제공과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불교중앙박물관 인문학강좌'를 시행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정토신앙: 치유와 평화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답사를 포함 총 5회의 강의로 구성됐다. 첫번째 강의로는 미탄 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강사)이 '아미타 정토신앙의 수용과 전개'를 주제로 정토사상의 전래 및 전파과정 등을 조명한다. 제2강을 맡은 박은경 교수(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는 '정토 신앙과 불화'를 주제로 정토신앙이 전래된 이후 불화의 특징과 의미를 전한다.

제3강은 배재호 교수(용인대 문화유산학과)가 '정토신앙과 불상'을 주제로 불상의 등장과 변화과정에 대해 강의하며, 제4강은 이강근 소장(모란미술관 부설 모란미술연구소)이 '정토신앙과 사찰'을 주제로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한 한국 사찰을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제5강은 답사로 심주완 불교중앙박물관 종무관이 강사로 나선다.

수강 신청은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화와 이메일(flower_pig@buddhism.or.kr)로 하면 된다. 수강료는 불교중앙박물관회 회원 5만원, 비회원 7만원이다. 수강생은 80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정토신앙은 아미타여래의 본원력을 믿고 의지해 극락정토로 나아가는 깨달음을 얻는 신앙"이라며 "이번 강좌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정토신앙을 소개함으로써 고통과 불안을 덜어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02-2011-1967

신중일 기자

禪筆로 그려낸 문인화를 만나다

이상배 작가, '청초고아' 개인전
4월 22~28일 문경문화원서
전통 문인화 작품 38점 전시

불자 문인화가가 선(禪)적 필치로 그려낸 문인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문인화계의 중진인 심천 이상배 작가는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문경문화원 전시장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청초고아(淸楚古雅, 화려하지 않으면서 맑고 깨끗한 옛스런 풍치가 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는 작가가 1년여 동안 그린 38점이 전시된다.

문인화는 전문적인 화가가 아닌 사대부들이 그리던 그림이다. 그래서 문인화는 기법에 얽매이거나 세부 묘사에 치중하지 않고 그리고자 하는 사물의 내적인 면을 표현하고자 한다. 즉, 사의(寫意)를 중시하며 기교보다는 천진함, 간결함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상배 문인화가의 작품 '영세불심'.

이상배 작가의 기저에는 불교사상이 내재돼 있다. 어릴 때부터 이어진 불연(佛緣)의 영향으로 작가는 사찰의 현판, 주련, 상량문의 글씨를 쓰고 매년 사찰 달력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작품 곳곳에 선적 요소가 묻어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이번 전시의 대표작인 '영세불심(永世佛心)'에서는 작가의 깊은 불심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는 "넓은 연못에 맑게 피어난 연꽃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 대해 소병돈 대한한시학회장은 "문인화의 미(美)는 함축과 여운의 미학으로 이는 노장의 무위주의와 불교의 선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대 문인화가 중에는 이 같은 미학을 이상배 작가가 잘 드러낸다"면서 "이번 전시는 온고지신(溫故知新)·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현대 문인화를 새롭게 구현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심천 이상배 작가는 충남 청양 출신으로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아천 김영철 선생에게 사사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3회, 입선 2회, 대한민국현대서예문인화대전 대상, 특선, 대한민국문인화대전 특선 2회 등을 수상했다.

현재 문경시 지음재에 거주하며 한국문인화협회 부이사장, 아묵동인회 회장, 아시안캘리그라피협회 마스터·이사, 면암서화협회 이사, 문경불교문화연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작가들이 그려낸 '부처님 세계'

불일미술관 '필동그래피'展
이상록 등 동국대 동문 5인
서양화, 불화로 부처님 그려

동국대에서 서양화와 불교미술을 전공한 작가들이 자신만의 개성으로 부처님 세상을 그려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진경 스님)는 4월 12일부터 4월 27일까지 경내 불일미술관에서 그룹초대전 'Pildong(筆同)graphy(이하 필동그래피)'를 개최한다.

필동은 작가들의 모교인 동국대가 소재한 곳으로 전시 참여 작가 이상록·유지선·신윤영·송금희·조민경은 모두 동국대에서 서양화와 불교미술을 전공했다. 각기 다른 전공의 작가들이 같은 붓(필동)을 들고 '판화'라는 기법으로 사제 인연을 맺고 부처님 세계를 그려 나간다는 의미도 전시 제목에 담겼다.

이상록 작가는 동국대에서 학생들에게 30년 동안 판화 수업을 지도했다. 판화작업으로 이미 일가를 이룬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미공개 동판 불화 8점을 최초로 선보인다. 유지선 작가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작업을 활발히 이어 가고 있다.


이상록 작가의 작품 'When that day comes'.

신윤영 작가는 전통 불화를 바탕으로 서양의 유화 기법을 접목한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치고 있으며, 동대부속가람고등학교 미술교사인 송금희 작가는 연잎, 연꽃, 불상을 소재로 한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인다.

조민경 작가는 불교 도상에 이미지, 상징을 더하는 독특한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및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종회소집 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1963년 7월 10일 원효대사 사상을 펴기 위하여 창립되었고 1963년 12월 6일 비법인사단 불교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이어온 분열을 종식하기 위하여 많은 세월을 인고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비합 1의 선고 결정에 의해 종정 추대 및 총무원장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후보를 위한 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결과 추대위원회를 구성, **2025년 4월 24일까지 종정을 추대합니다.**

아울러 2025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 17시까지 총무원장 입후보 신청을 받습니다.

종정 및 총무원장 선출 종회를 2025년 5월 1일 오후 2시 망월사서 개최하기에 이에 종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총무원장 **일륜(김두환)**
종 회 의 장 **용일(김순석)**

문의 : 임시사무국장 박태우 010-5590-0009

세시간 염불도 거뜬 !

하던 내 체력! 이제는 30분 염불에도 무리가 오니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 천만에!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마이크와 2m 멀리서 세시간 힘빠진 작은 염불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휘감는 특수염불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frac{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